

# 문학과 치유

문학과 치유의 관계

담당교수: 문선영

# 문학의 기능과 효용

##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

- 카타르시스를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킨 뒤에 이들 감정을 다시 몰아내는 재귀적 과정
-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종교적으로 정화된 것처럼 조용해지며, 평정을 회복
- 감정을 이성 못지않게 인간에게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
- 감정이나 걱정은 적절히 통제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감정의 몰아내기라는 개념을 동반하지 않음.
- 감정적 쾌감과 지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합된 것이라는 것

## 문학적 상상력과 치유

감상적인 감정이 무자비함이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즐기는 취향과 완벽히 양립할 수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대표적인 예로서, 저녁에 퇴근해 아내와 자식들을 다정하게 껴안아 준 뒤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했다는 아우슈비츠 사령관의 사례를 상기해보라).

-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153쪽.

## 문학적 상상력과 치유

문학적 상상력은 나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데 필요한 태도를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16쪽.

# 문학의 치유적 기능

-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 관심을 넓혀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 무의식적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해 보상을 체험하게 한다.
-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통찰할 수 있게 한다.
- 자기 입장과 태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자신의 갈등과 좌절에 대해 보인 정신적, 감정적 반응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준다.

# 문학에서의 치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 문학을 통해 '나'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갖기

올바른 감상, 이해라는 억압된 방식, 자기 검열  
은 문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제한을 줄  
수 있다.

작품의 주인공이 삶을 바라보던 시선, 즉 타자  
를 향해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감정적 반응만 집중하지 않기

# PBL(Problem Based Learning) 수업

- 교수자 중심 -> 학습자 중심(참여, 소통)
  - 협력/자기주도적 학습 -> 문제해결
  - 문학과 치유 -> 문학을 통해 '나'를 관찰하고, 다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 마련
- : 마음의 이해, 감정적 반응에 대한 이해(소통, 협력) -> 타인에게 표현/공유 -> 문제 해결의 고리 찾기  
-> 자아성찰
- 사고력 강화형 (Th-PBL: Think-UP Problem Based Learning)

## 시 다시 쓰기

“걸어가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위를 날아가느냐에 따라 시골 길이 발휘하는 힘은 전혀 달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그것을 읽느냐 아니면 베껴 쓰느냐에 따라 발휘하는 힘이 전혀 다르다.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은 오직 길들이 풍경 속을 뚫고 나가는 모습만을 볼 뿐으로 그의 눈에 길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세와 동일한 법칙에 따라 펼쳐진다. 길을 걸어나는 사람만이 길의 지배력을 알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쪽 펼쳐져 있는 광야에 불과한 지형들로부터 마치 병사들을 전선에 배치하는 지휘관의 호령처럼 원경들, 전망대, 숲 속의 공터, 굽이굽이 길목마다 펼쳐진 멋진 조망을 불러낼 수 있다.”

- 발터 벤야민, 「중국도자기 공예품」, □□일방통행로□ , 27~28쪽.



영화를 더 좋아한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

바르타 강가의 떡갈나무를 더 좋아한다.

도스토옙스키보다 디킨스를 더 좋아한다.

인류를 사랑하는 나 자신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더 좋아한다.

실이 꿰어진 바늘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한다.

초록색을 더 좋아한다.

모든 잘못은 이성이나 논리에 있다고

단언하지 않는 편을 더 좋아한다.

예외적인 것들을 더 좋아한다.

집을 일찍 나서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의사들과 병이 아닌 다른 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오래된 줄무늬 도안을 더 좋아한다.

시를 안 쓰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시를 써서 웃음거리가 되는 편을 더 좋아한다.

사랑과 관련하여 매일매일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비정기적인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에게 아무것도 섰불리 약속하지 않는

도덕군자들을 더 좋아한다.

지나치게 쉽게 믿는 것보다 영리한 선량함을 더 좋아한다.

민간인들의 영토를 더 좋아한다.

정복하는 나라보다 정복당한 나라를 더 좋아한다.

의심을 가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정리된 지옥보다 혼돈의 지옥을 더 좋아한다.

신문의 제1면보다 그림형제의 동화를 더 좋아한다.

앞이 없는 꽃보다 꽃이 없는 앞을 더 좋아한다.

품종이 우수한 개보다 길들지 않는 똥개를 더 좋아한다.

내 눈이 짙은 색이므로 밝은 색 눈동자를 더 좋아한다.

책상 서랍들을 더 좋아한다.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보다 더 좋아한다.

숫자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자유로운 제로를 더 좋아한다.

기나긴 별들의 시간보다 하루살이 풀벌레의 시간을 더 좋아한다.

불운을 떨치기 위해 나무를 두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인지 물어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존재, 그 자체가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제목:

(영화를) 더 좋아한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

(바르타 강가의 떡갈나무)를 더 좋아한다.

(도스토옙스키보다 디킨스)를 더 좋아한다.

(인류를 사랑하는 나 자신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더 좋아한다.

(실이 꿰어진 바늘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한다.

(초록색을) 더 좋아한다.

(모든 잘못은 이성이나 논리에 있다고  
단언하지 않는 편)을 더 좋아한다.

(예외적인 것들)을 더 좋아한다.

(집을 일찍 나서는 것)을 더 좋아한다.

\_\_\_\_\_을/를 더 좋아한다.

\_\_\_\_\_을/를 더 좋아한다.

## 시를 통해 ‘나’ 들여다보기

활동: 시 <선택의 가능성>을 참고하여 시를  
창작 해보자.

괄호 안을 자신의 이야기로 변경하여 한 편  
의 시를 작성해보세요.

“말하기의 반대말은 듣기가 아니다. 말하  
기의 반대말은 기다림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자정에 친구의 방을 두드리고는  
새로 쓴 글에 대한 반응을 요구했던 것이 기억이 난  
다. 그는 내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  
정액을 얼마나 세밀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터무니  
없이 장황하게 칭찬을 늘어놓았다.”

다른 사람의 말 진정으로 들어 주기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기

무조건적 칭찬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